

이슈

2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3228호

박항서의 통영 힐링 캠프

“베트남 올림픽 도전, 회복·치유부터”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이 특별한 훈련캠프를 갖는다. 박 감독은 “양국의 성원과 격려로 영광을 입겠다”며 “베트남 정식으로 ‘원 팀’을 이뤘고 경기를 할수록 자신감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 오전 입국했음에도 분위기는 뜨거웠다. 약 200여 명의 베트남인들과 한국 팬들이 김해공항을 찾아 베트남 선수단의 방문에 환호했다. 박 감독은 “양국의 성원과 격려로 영광을 입겠다”며 “베트남 정식으로 ‘원 팀’을 이뤘고 경기를 할수록 자신감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베트남 A대표팀과 U-23 대표팀 통합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출전하는 전 대회에서 호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4강,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카컵) 우승, 올해 초 AFC 아시안컵 8강에 이어 SEA게임을 평정했다.

박 감독이 모국을 찾은 이유는 치유와 회복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회복에 전념하면서 제자들의 컨디션을 높인다는 의지다. 이들이 내년 1월 태국에서 개최될 AFC U-23 챔피언십에 도전한다.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로 베트남도 사상 첫 올림픽 진출에 욕심을 낸다. 박 감독은 “일단 조별리그 통과를 목표로 했다”면서 “2022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도 세 경기 남았다. 내년 3월 말레이시아 원정이 다음 스텝”이라고 설명했다. 남정환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FA 빅3 초대형 계약 완료… 시장에 남은 좌완 3인 류현진·범가너·카이클의 운명은?

보라스가 된 최고 잭팟 카드, 이젠 류현진!

〈류현진의 슈퍼에이전트〉

최고타자 렌던, 약 2871억 LAA행 일짜는 좌완 3인…원하는 팀도 겹쳐 다저스는 범가너에 군침 흘리지만 보라스의 매직은 누구도 예측 못해

‘빅3’가 일찌감치 철수한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류현진(32)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1억 달러 잭팟’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시장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겨울 메이저리그 FA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FA 랭킹 1~3위로 평가받아온 선발투수 게릿 콜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3루수 앤서니 렌던은 모두 연평균 3500만 달러 이상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맺고 윈터미팅 종료 이전에 시장을 떠났다. 콜은 9년 3억2400만 달러(약 3797억 원)에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다. 스트라스버그와 렌던은 똑같이 7년 2억 4500만 달러(약 2871억 원)에 각각 워싱턴 내셔널스, LA 에인절스를 택했다. 5일(한국시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5년 1억1800만 달러(약 1383억 원)에 사인한 우완 잭 윌라까지 포함하면 상위 선발투수 3명은 모두 동지를 정했다.

이제 FA 시장에 남아있는 선발투수들 중에서 류현진과 더불어 매디슨 범가너, 델리스 카이클이 ‘노른자’로 분류된다. 미국 매체 CBS스포츠는 14일 남은 FA 선수들의 가치와 관심도를 거론하며 범가너를 2위, 류현진을 3위, 카이클을 4위로 나란히 배치했다(1위는 3루수



메이저리그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굵직한 투수 자원들이 계약을 마치면서 이제 남은 좌완 세 명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현진, 매디슨 범가너, 델리스 카이클은 모두 좌완인데다 투구 스타일까지 비슷해 여러 팀들의 영입대상에 동시에 올라있는 상태다. 사진은 11일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는 류현진.

스포츠동아 DB

조시 도널드슨).

공교롭게도 류현진, 범가너, 카이클은 똑같이 좌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타자를 힘으로 압도하기보다는 예리한 커맨드를 바탕으로 요리해나가는 피칭 스타일도 비슷하다. 또 하나 닮은



손흥민이 UEFA 공식 잡지인 ‘챔피언스저널’의 2020년 신년호 표지모델로 선정됐다. 사진출처 | 챔피언스저널 홈페이지

또한 손흥민은 UEFA공식 잡지인 ‘챔피언스저널’의 2020년 신년호 표지모델로 선정됐다. 챔피언스저널은 2020년 신년호에 대해 15일부터 선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손흥민은 양두양 그라즈만(바르셀로나)과 함께 표지를

점도 눈에 띈다. 적어도 이번 FA 시장에서 선 원하는 팀들이 겹친다는 사실이다.

CBS스포츠는 트레이드 루머를 종합해 류현진에게는 원 소속팀 LA 다저스를 비롯해 에인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텍사스 레인저스, 미네소타 트윈스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범가너는 다저스,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연결돼 있다. 카이클은 에인절스, 토론토,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 신시내티 레즈, 화이트삭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영입을 희망하는 팀들이 겹친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만큼 수준급 선발 자원을 찾는 팀이 많다는 시장 상황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수요’라는 측면에서다. 반면 대체자원이 적지 않은 현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류현진의 입장에서 다저스가 자신보다는 범가너에게 더 흥미를 느끼고 러브콜까지 보내고 있는 분위기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에이전트인 스포트 보라스가 또 한번 수원을 발휘할 때다. 10일부터 12일까지 고작 사흘 만에 스트라스버그, 콜, 렌던을 놓고 모두 8억1400만 달러의 빅딜을 성사시킨 보라스다. 공교롭게도 남은 좌완 투수 3명 중에서도 류현진과 카이클은 보라스의 고객이다. 구단들과 ‘밀당’에 능한 보라스라면 지금의 시장 상황과 좌완 프리미엄을 활용해 류현진에게 만족스러운 계약을 안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UEFA·FIFA, 월드클래스 손흥민 인정

- 1 챔스리그 베스트 11
- 2 UEFA잡지 신년모델
- 3 FIFA 홈피 메인 장식

‘월드클래스’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손흥민(27·토트넘)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수식어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4일(한국시간) 홈

페이지를 통해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베스트11을 선정했다.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라힘 스탈링(맨체스터시티), 하킴 지예흐(아약스)와 함께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연한 결과였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는 조별리그에서 5골·1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든, 챔피언스리그든 손흥민이 베스트11에 선정되는 것은 어색하지 않은 일이었다.

“거짓 사실 유포 27년 연예 활동 펴뒀” 김건모, 성폭행 주장 여성 맞고소



가수 김건모가 최근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건모의 소속사 손흥민(왼쪽) 건물기획 대표와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김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및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뉴스

피소된 지 5일만에 적극 대응 나서 “피해 주장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몰라 폭행 관련해서도 억울함 밝히겠다”

가수 김건모의 ‘반격’이 시작됐다.

최근 불거진 성폭행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낸 것 말고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김건모가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건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와 소속사 건물기획의 손흥민 대표를 내세워 해당 여성을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여성으로부터 검찰에 피소된 지 5일 만이어서 당초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던 것에 비해 비교적 시간이 걸린 셈이다. 앞서 9일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냈다.

이에 대해 고은석 변호사는 15일 “통상 일주일 정도면 상대방의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아 볼 수 있다. 고소장 내용을 보고 대

응하려 늦어졌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면 피해만 확산될 수 있어 상대방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맞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건모는 현재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모는 또 다른 여성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기자회견 식으로 억울함을 알릴 계획이다. 소속사 건물기획 측은 이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건모가 따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27년간의 연예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하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 많은 분께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전말이나 진실은 수사과 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건모는 “제 갈 길을 가겠다”며 7일부터 데뷔 25주년 전국투어를 시작했지만 결국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 측은 “2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예정된 전국투어 일정을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며 팬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Lotto 6/45 889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12월 14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13	29	38	39	42	26
1등 총 당첨금						21,089,986,950 원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0	2,108,986,950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7개 보너스일치	60	58,582,971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338	1,503,413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14,198	50,000 원
5등 3개 숫자일치	1,907,477	5,000 원

*당기 당첨금은 1회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만일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난번 복권 구매는 중독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행불안센터 080-850-0501 www.clear.dhlottery.co.kr